

창업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이운석*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팀장
phil@koef.or.kr

1. 창업교육 정책과 지원사업

성장 중심의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부딪히고 ‘고용 없는 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창의성과 융합이 강조되는 ‘창조경제’를 국정 키워드로 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IT와 융합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적 기술개발, 국내외 글로벌 신규 시장 창출, 규제 개혁 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창조경제 실현주체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다. 창업에 관한 정책의 흐름을 보면, 2013년 5월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시켰고,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5월)과 ‘창조경제 실현계획’(6월)을 연이어 발표했다. 8월에는 미래부와 교육부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을 발표하여 ‘상상·도전·창업’ 문화 및 ‘학과·스펙·국경초월’ 문화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창의인재가 가져야할 핵심역량을 제고하는 토대를 마련했는데, 전략과 추진과제로 중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팀장
•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사업(2012~현재) 등

등 기술창업교육 강화를 통한 기업가정신 고취와 대학 창업활성화로 학생의 도전역량 제고를 통한 ‘창업 친화형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 을 내세웠다. 곧이어 9월에는 미래부·교육부·중기청이 공동으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을 수립, 준비된 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실행에 나서고 있다.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은 ‘창업 친화적 대학 교육제도 마련’, ‘대학생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지방대학 여건 및 창업 인식 개선’ 의 3대 전략과 이를 위한 8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3월 ‘창업 친화적 학사제제도 운영 매뉴얼’ 을 배포했다. 이 매뉴얼에는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창업휴학제의 조기정착 및 활용방법,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 대체학점제의 운영방법, 각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 강좌를 타 대학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학점 교류제 등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아울러, 창업경험을 가진 직원과 이런 직원을 채용한 기업의 사례를 정리한 ‘기업인재! 창업경험자를 주목하라’ 를 배포하여 창업교육이 창업을 위한 과정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 뿐 아니라,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처별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내놓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기업과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아카데미’,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쿨’,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선도대학’ 등 초중고부터 시니어 계층까지 전주기에 걸친 창업교육 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 고려대에서 시작된 ‘캠퍼스 CEO’ 을 서울시 내 10 여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지원했으며, 교육부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을 통해 각 대학별로 창업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대학 창업교육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 기업가정신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출연 연구원, 대학(원)생, 산업체 종사자 등을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은 15개로 시작하여 올해는 21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지원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은 61개에서 67개로 늘어날 예정이고, 미래부는 올해부터 카이스트 등 특성화 대학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2. 창업교육 국내의 현황

지난 해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2013년 대학산학협력백서에 따르면 2011년 전국 대학교 창업 강좌 수는 총 2,582개(일반대 1,950개, 전문대 632개)이며, 153,258명(일반대 131,002명, 전문대 22,256명)의 학생이 창업 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대학생 수를 290만 명으로 볼 때, 약 4.5% 정도에 불과하다. 작년에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실시한 ‘대학 창업인프라 실태조사’ 결과, 대학 창업동아리 수가 1,222개에서 1,833개로 50% 증가했고, 창업동아리 학생 수도 18,027명에서 22,463명으로 25% 가량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에 비례해서 양적으로 더 많은 강좌가 필요한 상황이다.

창업교육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2013년 산학협력선도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의 창업 강좌 수강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창업 강좌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70.34점으로 전년에 비해서 소폭(0.22점) 증가했지만, 여전히 ‘수우미양가’로 보면 ‘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창업교육의 효과, 창업 강좌, 창업교육자, 교수법, 교육환경의 5개 부문 중 교수법과 교육환경 등이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어, 체계적인 교수법과 교육환경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 모의창업, 시제품 개발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되어야 하는 창업 강좌의 특성 상 실습과목이 충분해야 하지만, 아직은 이론 강좌가 더 많이 개설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런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도 비즈쿨 등 초중고를 위한 창업교육이 있지만, 대체로 대학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한편,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창업교육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여 사회 전반의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고 창업인재를 적극 육성 중이다.

구 분	창업관련 교육 운영현황
미국	○ 연방정부의 중기청, 상무성 등이 다양한 창업교육을 지원, 18개 주정부가 창업교육 지원 법률을 제정
유럽	○ 대다수 EU 국가들은 중·고교에서부터 기업가정신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 - (영국) 15~19세 학교 90%가 기업가정신 교육 채택, 교사용 기업가정신 교육 온라인 툴 개발 추진 - (스페인) 중소기업청 교재 개발 배포, 중학생에게 기업가정신 교육 필수과목 채택 추진 - (스웨덴) 기업가정신 경제교육 반영, 교사용 기업가정신 사례 발굴 및 교재 보급
이스라엘	○ 테크니온 공대, 히브리대 등 이스라엘 대학을 창업의 산실로 삼고 연구결과물의 상업화와 학생창업을 적극 지원
일본	○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정신 교육 실시

* 자료 : 창업교육 5개년 계획(교육부 등, 2013) 및 '기업가정신' (한국경제연구원, 2013) 자료 재구성

3.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이런 현황에서 창업교육의 보완 및 개선사항을 찾아보면, 먼저 창업교육을 실시할 대상을 대학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초·중고 및 대학, 일반인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전주기적 창업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을 갖추도록 하여 실제로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도 조직 내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재들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창업선도대학이나 산학협력선도대학, 캠퍼스 CEO 지원사업 선정대학 등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업교육을 전 대학으로 확산하고, 초·중고교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일반인 대상으로 여성, 군인, 시니어, 장애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 세분화한 대상별 창업교육 과정을 만들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창업교육을 시킬 교육자를 육성해야 한다. 창업교육의 특성 상, 실습과 체험형 학습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주 교재 뿐 아니라 부 교재와 워크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가 필요하다. 교육자의 확보를 위해 우선 현장에서 현재 창업 관련 과

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를 대상으로 TOT(training of trainers)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창업 및 창업교육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게 하고, 교수법과 툴(tool)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산업체 현장 경험 보유자나 창업 유경험자가 창업교육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별도 교육과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진로상담교사 등에게 창업 관련 연수와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학생들에게 취업 뿐 아니라 창업도 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세 번째로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창업을 전공하거나 창업 또는 산업의 현장경험을 보유한 교육자가 적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포함한 표준화된 커리큘럼과 교재를 제공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커리큘럼과 교재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태도와 지식부터 시작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 역량까지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하며, 학생용 교재 뿐 아니라 교사용 교재도 함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증거기반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창업교육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창업과 창업교육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영상이나 사례를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아이디어 발굴 - 검증 - 수정 - 사업계획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교육, 그리고 시작품 제작 등 실행까지 온오프라인이 연계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문화조성이다. 창업교육이 교실이나 모니터 앞에서, 혹은 실습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창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여러 사례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미국에서조차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부모형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사업과 전담 기관을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창업지원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잠재적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발굴, 지원하여 창업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꿔왔으며, 이제는 제 2의 창업지원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열린 창업지원

사업 전개와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 청년창업센터 등 서울시가 보유한 시설을 민간에 공개해 운영을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벤처붐 시절을 대표했던 테헤란밸리에 D캠프, 마루180,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등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투자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프라이머, 케이큐브벤처스 등 창업 선배들이 후배 창업자 양성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실시하고 있는 창업교육과 엑셀러레이팅, 인큐베이팅에 협력 또는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만하다. e창업스쿨을 통해 온라인 창업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을 연계하여 지역혁신과 창의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듯이 창업가들을 초청하여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하여 전파할 수도 있다. 서울시에 있는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매칭하여 창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창업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현장중심의 창업교육이 실현되도록 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 미래부, 교육부, 중기청(2013), '창업교육 5개년 계획'
- 한국경제연구원(2013) '기업가정신 창조경제 성공의 핵심조건'
- 관계부처(2013),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4), 창업교육센터 실태조사 및 창업 강좌 만족도 조사
- 한국연구재단(2013), 2013년 '대학산학협력백서'
- 인터넷 'What Happened to Silicon Values?'
(<http://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2/06/what-happened-to-silicon-values/258905>)